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2년 7월 제268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휴양형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서경원 편집인 : 이석호 인쇄인 : 임헌표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10월 22일(토) 개최한다

〈제92차 총동문이사회〉 역대 회장 대수(代數) 변경 등 9개 안 의결

총동문회 제92차 이사회가 7월 19일(화) 오후 6시 30분에 모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되어 당면한 현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열리지 못하고 연기되었던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를 오는 10월 22일(토)에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재확산할 경우 취소될 수도 있음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또한 총동문회 고문위원으로 박대용 전 회장과 강신열 전임회장을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첫 번째 '재정합리화 계획의 건'이 상정되어 임원, 이사, 산하단체에서 10만원씩이라도 연 회비를 납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임원, 이사, 산하단체가 500여개에 이르는데 10만원씩만 납부한다면 연 5천만원 가량의 재정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문회보 구독료 2만원을 납부하자고 촉구했다. 십시일반으로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동문회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기타 안건 중 두 번째로 동문장학회(위원회)설치 및 운용 건이 상정되어 동문장학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세 번째 기타 안건으로 총동문회 사무실 국장들의 업무추진과 위상 강화 안건이 상정되었다. 앞으로 각 국장들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여 주도하도록, 국장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 메뉴얼을 만들고 실행하기로 했다.

제92차 총동문회이사회가 모교 시청각실에서 열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현안 문제를 명쾌하게 처리했다.

네 번째 기타 안건으로 매년 6월에 열리는 모교 현충일행사 주최의 건이 상정되어, 현충일 행사는 학교에서 주관하되 반드시 동문회와 협의하는 걸로 결정되었다.

다섯 번째 기타 안건으로 전두환 대통령 모교 방문 기념비 민원의 건이 논의됐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측에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라고 하였고 이에 학교 측에서는 1) 현행대로 유지 2) 방문비를 철거하여 따로 보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동문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동문회 차원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여섯 번째로 송재길 전 임회장 인정의 건이 상정되어, 2016년 사퇴한 송재길 동문에 대해 역대 회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송재길 전임 회장은 이미 관습적으로 징계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본인이 지난 5월 27일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사과함에 따라 역대 회장으로 복원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대진 고문이 회장직을 2번 연임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 또한 바로잡아 윤대진 고문이 11,12대 회장, 이윤학 고문이 13대, 이원승 고문이 14대, 임세환 고문이 15대, 전종현 고문이 16대, 송재길 전임회장이 17대, 임세환 고문이 18대, 박대용 고문이 19대, 강신열 고문이 20대로 정정되었고, 현 서경원 회장이 21대가 되는 걸로 정리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동문 간의 화합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밴드에 올라오는 글들로 인해 동문들 간에 선후배의 질서와 예의를 무너뜨리고 설전과 감정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따라서 동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글들이 올라올 시에는 집행부에서 1차로는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삭제하고 그럼에도 다시 같은 글이 올라올 시에는 2차적으로 당사자에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우리 충기인들은 그동안 전국에서 모범적인 동문으로 알려져 왔고, 선후배 간에도 훈훈한 인정이 오고갔다"며 "다시 예전처럼 화합하는 동문회가 되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시어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호 편집위원장 –

윤대진, 송재길 전 총동문회장 등 代數(대수) 변경 의결

윤대진 11대→11, 12대
이윤학 12대→13대
이원승 13대→14대
임세환 14대→15대
전종현 15대→16대
송재길 16대→17대
임세환 17대→18대
박대용 19대
강신열 20대
서경원 21대

알림

"코로나로 연기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10월 22일 개최"

92차 이사회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열리지 못하고 연기되었던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를 오는 10월 22일(토)에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화합과 발전을 위해 충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2022년 7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서 경 원

모교에 가칭 '근현대산업교육 역사관' 건립 추진

서경원 총동문회장 등 동문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만나 당위성 설명

모교를 중심으로 하여 대전지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연합하여 '가칭 근현대산업교육 역사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과 동문 4명은 7월 20일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설동호 교육감을 만나 산업 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갖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내에 역사관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큰 호응을 받아냈다.

이 자리에는 모교를 대표하여 서경원 총동문회장(15회), 이우정 고문(3회), 이종연 동문(11회.전 예산 부군수), 이재일 수석부회장(15회)이 배석했다.

가칭 근현대산업교육 역사관은 모교 기숙사 건물 1층에 위치한 현 모교 역사관을 리모델링하여 117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전시관에는 대전지역 산업 계열 학교의 과거 현재의 생생한 기록들이 전시됨으로써 대한민국 중화학공업 선진화 과정을 교육에 활용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함이다. 소요 예산은 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기술강국, 공업강국, 제조강국, 수출강국이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리 동문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갈고닦은 기술 역량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6 · 25전쟁 이후 가장 가난한 빈곤국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다이나믹 코리아로 발돋움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이제라도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생생한 기록들을 한곳에 모아 전시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 선진화 과정을 미래 세대에 생생히 전달하고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계승 발전 시켜 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우리는 충기인으로서 높은 기개와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모교 동문들이 설동호대전시교육감을 만나 역사관 건립을 건의했다.

–이석호 편집위원장 –

"동문화합과 발전위해 우의 증진과 네트워크 구성 노력"

서경원 회장 등 총동문회 집행부 발로 뛰며 활약 동문들 호응 잇따라

서경원 총동문회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5회 동문들이 모였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전국의 충기 동문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기대가 크다. 서경원 총동문회장도 이에 발맞추어 전국을 돌며 동문화합과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이재일 수석부회장과 각 국장들과 함께,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채 인천, 경기북부, 서울, 세종 등 각 동문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응을 받고 있다.

서경원 회장은 "동문 선후배들을 만나다보니 총동문회장으로서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며 "대학 강의와 사업체 운영으로 바쁘지만 가급적 참석해서 동문회와 학교를 홍보하고 동문간의 우의증진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하나가 되어 충남기계공고동문회가 긍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경원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지역과 단체 동문회가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전종현 총동문회고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님 노력에 감탄하며 동문역사에 한 획을 긋는 회장님의 진심은 오랫동안 빛날 것"이라며 "멀리서나마 격하게 응원하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15회동문회는 7월 15일 저녁 모임을 갖고 서경원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힘을 보태자고 결의했다.

–이석호 편집위원장 –

매달 동문회비 일만원씩 자동이체키로

서경원회장 초대 고문단모임서 결의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7월 27일 총동문회 고문들을 초대하여 점심을 하면서 동문회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경청했다.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고문들은 즉석에서 100만원을 모아 쾌척하였고 솔선수범차원에서 매월 1만원씩 동문회비를 자동이체하기로 결의했다.

중구 대사동 코다리냉면식당 모임에는 오응수(1회), 송주영(1회), 이우정(3회), 임용호(4회), 윤대진(5회), 이원승(8회), 전종현(12회) 고문과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 임헌표 사무총장(8회), 서경원 총동문회장(15회)이 참석했다.

서 회장은 "고문이 모범을 보이고 임원, 이사, 단체 등에서 매달 만원씩만 회비를 납부한다고 하면 동문회의 재정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동문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동문 선후배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문들은 "개인 사비를 들여 부모 모시듯 정성껏 접대해준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고맙고, 무더위 잘 이겨내라고 식혜 10박스를 제공한 임동현 감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동문회 뜻깊은 출범, 충기 동문의 품격 높였다”

“남은 인생길에 동문이 최고의 재산” 충기동문회 화합과 발전 기대

서울동문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동문들이 충기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임동현 동문이 참석 동문들을 일일이 소개하여 박수를 받고 있다.

서울동문회 출범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동문이 참석할까? 설레임도 잠시잠깐이다. 추진위 일부 동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생소한 동문들일진대 그 어색함과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

오후 5시는 모임 시작 시간이었다. 한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윤봉중(12회) 회장님, 송석진(21회) 총무국장, 최기춘(15회), 신병철(25회) 동문과 플래카드를 달고 자리를 점검하며 방명록과 이름표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동문들이 이내 도착하기 시작했다. 분명 이르고 빠른 시간이었다. 토요일 황금 주말 가정을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고 재촉 했을까?

이춘성 추진위원장(11회)의 축사에 이어 서경원 총동문회장의 격려사를 청해 듣고, 회칙을 규정하고 윤봉중 초대회장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가슴 뭉클했다, 모두가 한결같은 올곧은 마음은 충기인이라는 자부심과 동문애였다.

서울동문회 주요 회칙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제정되었고 권리와 의무 부문만 게재해 본다. ㅡ연회비 납부의무가 있다.(연 5만원) ㅡ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 각종 애경사시 승진 , 개업 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이나 금품을 제공. ㅡ정기모임은 짝수 달로 하고 참석자에 한하여 2만 원 회비를 납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문회 밴드 참조)

행사의 말미에 교가제창과 기념촬영이 남아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가제창은 생략하기로 했다. 그러자 참석한 동문들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교가 제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사도 곡도 가물거려 대다수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 해야 한다는 뜻이 강했다. 바로 휴대폰에 저장된 교가를 틀어 놓고 미리 프린트 하여 나눠준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계룡산 장한 기운 뻗어 온 자리”크게 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모두가 절제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교가는 끝났고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충남기계공고로 진학을 해야만 했을까?

이윽고 시작된 식사 만찬은 참으로 행복했다. 서먹한 것도 잠시 잠깐뿐 동문들은 그간 못다한 정을 나누고 형제 이상의 뜨거운 피를 가진 충기 동문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7시 경 바쁜 사업 일에도 불구하고 전종현 충동문회고문이 당도하여 덕담과 격려로 사기가 오른 선후배들은 위하여, 충기만세 등 건배사가 이어지고 술잔을 비우며 취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충기동문이라는 사실이 흐뭇하기만 하다.

시 한편이 저절로 읊조려진다.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쉽니다. 동문끼리는 만나야 힘이 나고 생기가 돕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동문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서로가 뜨겁게 응원하고 동문의 행복에 힘차게 손뼉 쳐라. 서로들 좋은 것들만 골라 취하고 동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라. 격려와 박수로 용기주고 기쁜 소식에 맞장구쳐라. /나쁜 일은 빨리 잊고 네편 내편 불신과 불협화음으로 남은 인생 망치지 마라. 힘 빼는 언어는 사용하지 마라. 어떤 명함에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품격을 가져라. /물이 깊게 고이고 마르지 않음은 물을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깊숙이 낮은 곳에 자리하고 깊은 샘 줄기가 근원이기 때문이다. 동문 역사 57년은 참으로 깊다. 서울동문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서울 동문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참석 순서대로)

윤봉중(12회 초대 회장), 최기춘(15회 경기북부 부회장), 송석진(21회 초대총무국장), 임동현(21회 홍보국장), 신병철(25회), 권혁주(17회), 권기대(13회), 육정관(15회 부회장), 이천구(13회 부회장), 심은용(21회), 김부흥(21회), 이점규(14회), 윤중길(19회 부회장), 노기종(19회), 김희수(19회), 정상희(15회), 박종선(22회 부회장), 조영백(22회) 조춘택(14회), 오옥(16회 부회장), 공영권(16회), 이창호(15회), 최선묵(16회), 김용만(16회), 조용(12회 자문위원장), 이영주(22회), 송일민(15회), 윤승혁(25회 부회장), 서경원(15회 총동문회장), 권오진(31회 총동문회 사업국장), 임기현(19회) 정기현(21회 부회장), 김용진(11회 추진위원, 경기북부동문회장), 이춘성(11회 추진위원장), 유재환(11회 경기동북부회장, 추진위원), 정기채(22회 설송회 기자), 이경범(15회), 강인성(19회), 이승기(21회), 김태환 11회 추진위원), 전종현(12회,총문회 고문) 추진위 자문위원 등 모두 41명이 참석하여 서울동문회 출범을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윤봉중 서울동문회장이 서경원 총동문회장에게 2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서울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사를 했다.

이날 장소 관계상 축하화환은 일체 받지 않았지만 육영민(1회) 대선배님의 따뜻한 마음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육육회’는 1966년 졸업을 기리는 의미를 가진다. 고급 기념타올을 선물로 주신 윤봉중회장께 감사드린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에서 고급양산 50개, 프로폴리스치약 50개를 협찬해주신 이천구(13회 전 총경) 부회장께 감사드린다.

ㅡ임동현 서울동문회추진위 홍보국장ㅡ

“압도적인 경기력과 조직력, 대전에선 적수가 없을 듯”

충기FC팀 모교에서 열린 제16회 대전시고교동문축구대회 우승

대전고교동문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동문팀이 우승기를 들고 기념촬영했다.

결승전에 앞서 서경원 총동문회장과 선수들이 필승을 합창하고 있다.

6월 26일 모교운동장에서 열린 제16회 대전시 고교동문축구대회에서 충기FC가 남대전고를 3대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충기FC는 이날 예선 1경기에서 남대전고를 4대1로 이기고 예선2경기에서 충남고를 7대3으로 제압하며 2승으로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파죽의 실력을 과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서경원 총동문회장과 이종업 모교 교장, 김종천 대전시고교동문축구대회 연합회장 등 내빈과 충기FC 구수섭(14회) 김덕기(15회) 김석래(16회) 송태헌(17회) 고문과 임정호 회장(23회), 한병수(23회) 이주한(23회) 이상희(24회) 김영도(25회) 부회장 등 회원 전원이 참가하여 실력발휘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충기FC 회원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다가 매주 토요일 모교 운동장에서 연습과 시합을 하며 실력을 쌓아 막강한 팀으로 거듭 났다. 이날 시합에서 특히 베트남 의정시찰을 하고 돌아온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22회)은 선수로도 출전하여 우승에 일조했다.

최근 모교 후배 축구팀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듯이 충기FC의 압도적인 경기력과 조직력은 앞으로 적수가 없을 듯 하다. 이른 아침부터 개회식 예선, 결승과 폐회식 우승 뒷풀이까지 같이 해주시고, 더운 날씨에 목이 터져라 동문 선후배들께 감사드린다.

– 홍준용 총동문회사무국장 –

“우승 향한 도전 멈추지 않겠다”

〈전국고교동창골프〉 동문팀 하반기 16강 그쳐

동문 골프팀이 고교동창골프 16강전 SBS골프방송 녹화를 하고 있다.

응원 온 서경원 회장과 최동준 동문

모교 동문 골프팀(단장 전종현)은 6월 27일 오후 4시 블루원상주골프장 동코스에서 열린 SBS배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 하반기 16강전경기에서 공주생명과학고에 1다운 차로 져 8강전 진출이 좌절됐다.

모교팀은 전종현 단장의 리더로 올해도 심기일전하여 허영준 주장(25회)과 이문휘 선수(27회)의 기존 출전 선수에다가 16회 박노환 선수가 가세하여 지난 6월 13일 열린 예선전(총 148개교 출전)에서 46개 학교가 참가한 1일차 예선에서 조 2위로 32강전에 진출하여 청주공고를 꺾고 16강전에 친출했다.

이날 경기에는 서경원 총동문회장과 최동준 21회동문회장이 골프장에 응원 차 참석하여 SBS골프방송의 녹화에 참여했다. 이날 경기는 녹화되어 7월 19일 밤에 방영되었고, 몇 차례 재방영될 예정이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모교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전종현 단장님과 선수들에게 동문들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내년에는 기필코 우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휘 동문골프팀 총무–

“동문골프 재야의 고수 찾습니다”

전종현(전 총동문회장 · 동문골프팀 단장)

모교 고교동창골프선수단은 설송회에서 주관한 충남기계공고골프대회(천안우정힐스) 성적을 근거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해 최근 4년 연속 본선에 진출했고, 전국 3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단은 전국대회 우승을 앞두고 중도에 하차하게 되어 동문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문 중에 출중한 실력을 갖춘 선수 1~2명만 보강하면 우승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 내년도 전국대회 출전에 앞서 동문 재야 고수들의 신청을 받아 자체 예선전을 벌여 대표선수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선전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고 규모를 파악한 후 예선전 일정을 잡으려고 하니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신청바랍니다. 참가 희망자는 가급적 핸디 8이하 실력이어야 합니다. 고교동창골프 1차예선 핸디는 출전선수 3명 중 2명의 성적 합계로 핸디 3 미만에서 예선통과 됨을 참조하시어 모교의 명예를 위해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동문회 전임집행부, 21대에게 업무 인수인계

총동문회 20대 집행부(강신열 회장, 백채준 수석부회장, 한흥교 사무총장)는 7월 12일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21대 서경원 회장과 이재일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

“선후배 성원에 감사, 충기인 자긍심으로 최선 다할 터”

이준배 동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취임

이준배 동문(23회)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세종시정 4기 첫 경제부시장에 내정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현재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배 동문은 1969년 대전에서 태어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 현장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 출신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부시장은 고졸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기업을 일으킨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이 부시장의 성공 신화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며 세종시에 그와 같은 도전정신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부시장 임명장을 받은 이준배 동문

이준배 동문은 “경제전문가, 투자전문가, 직업교육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밀알이 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세종시가 미래전략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배 동문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충기 동문 선후배들의 성원 덕”이라며 “충기인 자긍심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호 편집위원장 –

이준배 동문 참석 선후배에게 인사

세종시금강문화회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세종시 동문모임인 금강문화회(회장 서범석. 8회) 모임이 7월 22일 금요일 저녁 세종시내 모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오응수 총동문회 상임고문(1회), 이봉원(3회), 박상규(4회), 서범석(8회. 금강문화회 회장), 권병윤(8회), 이희봉 (11회), 김성오(15회), 서승영·임재필·임현수(17회), 박윤호(18회), 윤홍근(20회. 금강문화회 총무), 송형태(27회), 홍석호(33회) 동문 등 14명의 회원과 서경원 총문회장과 이준배 세종시경제부시장(23회), 권오진 총동문회사업국장(31회)이 월례모임에 초대받아 참석했다.

이날 세종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된 이준배 동문의 경사로 기분좋게 시작한 모임에서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금강문화회에 금일봉을 전달했고, 이에 서범석 회장이 총동문회에 1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의 격려사와 이준배 동문의 소감에 이어 서범석 금강문화회장의 인사와 함께 동문 가족 모두의 건강와 행운을 기원하는 건배를 끝으로 다음을 기약했다.

– 권오진 총동문회사업국장 –

“뒷방 노인네를 선배 대접… 오래 살고 싶다”

경기동북부동문회, 경기북부 초청 합동 모임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의정부지역 경기동북부 동문(회장 유재환11회)들의 초청으로 경기북부동문들이 함께 모인 어느 수락산 계곡에서의 여름 천렵은 동문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엄한 오페라와 같았다.

물 좋고 경치 좋고 음식 맛있는 좋은 곳을 찾아서 동문들을 힐링하게 해 준 의정부지역 현정배 사무국장(17회)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날 배기룡 (3회), 김성수(8회), 이종국(8회), 김정구(9회), 유재환(11회), 김용진(11회), 강희창(12회), 최헌성(12회), 정인창(13회), 박희량(13회), 최현국(14회), 최기춘(15회), 강진영(15회), 류운선(16회), 현정배(17회), 박정식(17회), 강대기(17회), 조일영(18회), 김경수(19회), 임동현(21회), 신병철(25회), 길상인(25회 신입, 처녀 참석 출판제본회사 대표) 강문식(28회 건축사 대표, 준신입 총3번째 참석)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은 월례회비 2만원씩을 받지 않았는데 경기북부일동(30만원) 이종국 8회(10만원), 유재환 11회(20만원) 김용진 11회(10만원), 강희창 12회(10만원), 정인창 13회(10만원), 강진영 15회(10만원), 강대기 17회(10만원), 임동현 21회(10만원) 동문들이 꾹꾹 찬조해주었다.

초대하신 유재환 경기동북부회장과 김용진 경기북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배기룡(3회) 고문님의 한 말씀은 미래 우리 동문들의 진로가 될 법도 하다. “동문들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뒷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을 이 노인네를 몸소 초대하고 이렇게 맞아주니 내 생애 100살 아닌 120살까지도 살고 싶다.”

– 임동현 경기북부 기자 –

“모교 전통 이을 수 있게 성원 부탁”

27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준비위원 모임

27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위원들의 모임이 7월 23일(토) 오후 6시에 대전 중구 오류동 삼성왕갈비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모임에는 김택수 준비위원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27회 동문들이 참석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랑스러운 충남기계공고의 역사와 전통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27회 동문들이 30주년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동기들과 동문 선후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김택수 27회 졸업30주년 준비위원장 –

"장애인으로 정치에 첫발, 충기인 최초로 국회 입성이 목표"

황경아 동문, 장애인 활동가로 시작 18년만에 시의원, 도전은 진행형

장애인으로 고통당하는 설움을 극복하고자 정치에 뛰어든 황경아 동문(21회)이 18년 만에 대전시의회 시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됐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황 동문은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 정치활동에 뛰어들었다.

황 동문은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직접 바꾸기 위해선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며 "2004년부터 장애인 활동가로 활약한 그는, 2013년 새누리당 대전시당 장애인위원장부터 시작해 세 번의 도전 끝에 제9대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동문은 "2004년 대전척수장애인협회를 시작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견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약자를 위한 정책 입안에 힘쓸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써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황 동문은 장애인의 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면서 큰

황경아 대전시의원

꿈을 펼치기 위해 처음엔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기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몇 차례의 좌절 끝에 주위의 권유로 시의회 의원으로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황경아 동문의 국회입성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충기인 중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대전시의회 의원이 된 황경아 동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며 사는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한 재난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안정된 생활과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충기인 명예 실추시키지 않게 노력"

충기언론인회 모임 황경아 시의원 초청

충기언론인회(회장 이우정)는 7월 22일 대전 문화동 코다리 냉면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대전시의원으로 입성한 황경아 동문(21회)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충기언론인회는 현재 10여 명의 언론인들이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우정 회장(총동문회 고문)은 "코로나사태로 자주 못 만나지만 동문들의 발전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며 "언론계에서 일하는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황경아 동문은 "험난한 정치 길에 입문하여 여기까지 온 것은 동문 선후배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충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 송창건 충기언론인회 총무 –

동문회 화합기원 발전기금 전달

공사모 20명 참석 오랜만에 모임 가져

공사모(회장 김수천 9회) 모임이 7월 14일(목) 7시에 대전 갈마동 남당리칼국수집에서 열려 코로나로 인해 오랜시간 만나지 못했던 동문들 20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참석하여 금일봉을 전달해주었고 공사모 모임에서도 동문회 발전을 위해 5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김수천 공사모 회장은 "동문회가 예전처럼 화합하고 서로 위해주는 모임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꽃과 케익으로 생일 파티 훈훈한 동문"

천안동문회 7월모임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천안동문회(회장 서정훈.16회)는 7월 21일(목) 저녁 7시에 22회 김 인경동문이 운영하는 양평 해장국에서 1회 정종대 선배를 비롯하여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천안동문회의 활성화와 체육대회등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경원 총동문회장도 참석하여 금일봉을 전달해 주었고 답례로 천안동문회와 임창홍(7회), 임세환(9회), 정백운(11회), 서정훈(16회), 김인경(22회) 동문이 발전기금을 후원하여 총동문회에 11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특히 서정훈 회장의 생일을 맞이하여 박원종(21회) 동문이 꽃바구니와 케익을 준비해주어 축하의 시간도 가져 이래저래 훈훈한 모임이 되었다.

– 이영규 천안 기자 –

동문소식 제보 안내

동문회수별 및 단체 동문 소식과 개인동정을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전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의용소방대로 뭉친 동문 3인방"

홍시완, 안중근, 김정훈 동문

7월 20일 대전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모임에서 동문 출신 3인방이 의기투합하여 저녁에 인근 식당에서 소주 한잔하며 우의를 다졌다.

사진왼쪽 문화지역대장 홍시완(18회), 사진오른쪽 가수원지역대장 안중근(21회). 가운데 기성지역대장 김정훈(22회).

수입 현황

기간 : 2022년 6월 22일 ~ 7월 27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방	1	박만영	50,000
자	1	송주영	50,000
전	3	이우정	20,000
광	3	장석기	20,000
자	4	나채규	20,000
방	4	서종원	100,000
방	4	송석범	20,000
자	5	강원석	20,000
전	6	유동균	50,000
전	6	유동환	100,000
전	8	임헌표	50,000
전	8	조성돈	20,000
기	9	김범우	20,000
자	9	김원식	20,000
광	10	안주현	100,000
방	11	강종서	100,000
광	11	김종호	20,000
전	11	이춘성	20,000
기	12	권석환	100,000
기	13	마평춘	5,000
기	14	남상복	5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14	이종업	50,000
기	14	임화섭	100,000
기	15	김성호	20,000
기	15	김영국	20,000
기	15	김정현	20,000
기	15	김좌겸	20,000
기	15	나상호	20,000
기	15	남광현	20,000
기	15	문광식	20,000
기	15	서경원	220,000
기	15	성권모	20,000
기	15	손종진	20,000
기	15	양병창	40,000
기	15	오택근	20,000
화	15	육정관	50,000
기	15	윤창남	20,000
기	15	이교진	20,000
기	15	이재일	120,000
기	15	이창우	20,000
화	15	전병열	20,000
기	15	정근택	20,000
기	15	정두현	70,000
기	15	정필선	20,000
기	15	정헌경	20,000
전	15	최배현	100,000
기	15	최신식	20,000
기	15	최종근	20,000
기	15	황인만	20,000
전	16	김희곤	20,000
전	16	성기일	20,000
전	16	신동선	5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17	나준헌	2,000
기	17	민운기	50,000
기	17	정관성	50,000
기	18	윤병진	20,000
기	19	배영환	20,000
기	20	박경하	100,000
기	21	문길수	20,000
배관	21	정구철	20,000
기	21	진춘식	50,000
기	21	채성준	20,000
기	22	박혁신	20,000
기	22	정연근	20,000
기	23	이남국	100,000
기	24	김성기	30,000
전	25	김인문	1,000,000
기	25	홍준용	70,000
기	26	류한의	20,000
전	26	한관한	100,000
전	28	신재광	20,000
기	31	강두형	30,000
기	31	권오진	20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34	공대성	100,000
전	34	김윤섭	50,000

단체		
	26회동문회	100,000
	고문단	1,000,000
	(오응수,송주영,이우정,임용호,윤대진,이원승,전종현,서한수)	
	공사모동문회	500,000
	금강문화회(세종)	1,000,000
	서울동문회	2,000,000
	안산동문회	1,100,000
	천안동문회	1,100,000

회보광고비

전	15	윤시영	10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200,000

"총동문회 화합 도모를 위해서도 노력"

기성동문회 군산 선유도 가족동반야유회

기성동문회(회장 안주현. 10회) 는 7월3일(일) 군산 선유도로 부부동반 야유회를 다녀왔다.

송주영(1회). 송석구 고문을 비롯한 가족 32명이 참석하여 모처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마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만남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주현 회장은 "앞으로 동문 상호간 우의를 굳건히 다지고 총동문회의 화합 도모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훈 기성동문회 홍보국장–

"족구 후배팀이 선배팀 간신히 이겨"

대전동문회 하계야유회 대둔산 계곡서

대전동문회 하계야유회가 7월 9일 토요일을 맞아 대둔산 자락 운주 계곡에서 열렸다. 9일 오전 대전시청 및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각각 출발했는데, 뿌리공원 출발지에서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깜짝 환송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야유회 장소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몸보신을 하며 숲 해설가이신 황규성 선배의 재미있는 숲 이야기 및 주옥같은 멘트가 일품이었다.

이어 선배와 후배팀으로 나눈 족구 시합에서 후배들이 간신히 이겨 내기로 벌은 10만원을 회비로 후배들이 기증했다. 이날 대전동문회의 기둥인 13회 선배들이 50만원을 후원했다.

– 김흥순 대전동문회 –

이원승 총동문회 고문 서산태안동문회 내방

이원승 총동문회 고문은 7월 20일 저녁 서산태안동문회를 내방하여 김완종 회장 및 전임회장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들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원승 고문은 예비역육군준장이자 前한양대교수로 올해 나이가 67세인데도 대학강의 및 해미읍성 연구 등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이날 대화를 나누며 깊은 감명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 문길수 서산태안동문회–

"발전기금 성원해주신 동문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요즘, 총동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걱정하여 발전기금을 성원해주신 동문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총동문회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총동문회장 서 경 원 올림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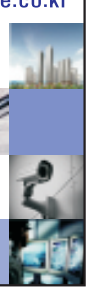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사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사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그린플러그(주)
전기차 충전기 판매 · 시공

빠른 충전을 원하는 분들의 파트너
모든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를
판매, 시공하는전문업체

대표전화 : 1533-2269
김영훈 이사 (21회) 010-8813-6905
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사면 계백로 2561

KIA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쓰임사무용가구

대표 안 중 근 (21. 기계과)
010-5426-8867
대전시 서구 정림동로7번길 22(무지개종합상가2층)
Tel.(042)584-0114 밴드. 착한가구 홈페이지. 모두

사무용 [의자, 가구, 파티션]
조달전문업체(생산) 어넥스, 투템DESICTON, 월드플랜
렌탈, 주문제작전문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미르마르커피
Mirmar coffee LOASTERS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 무 법 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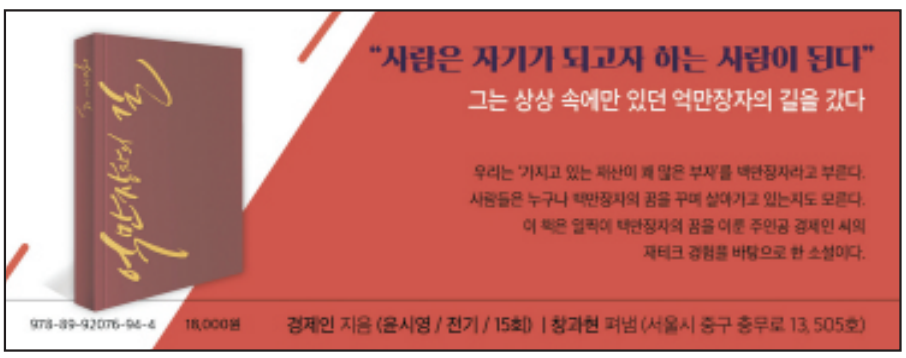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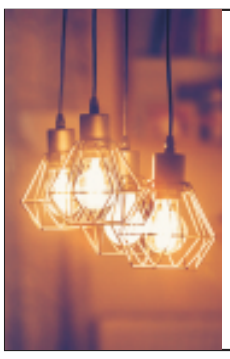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
돌다리청림가
doldariro.com

돌청장애인보호작업장

기계과(15회)
서 경 원

생산(판매)품	카페운영, 빵, 우유 등 음료
직업재활훈련	제빵, 바리스타 등
전화번호 (주문)	Tel 042)272-1006 Hp 010-5455-7531
	E-mail gwseo590401@hanmail.net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돌다리로36(석교동)
후원계좌	하나은행/627-910017-54005 돌다리청림가 사회적협동조합(공익법인)





Asung
(주)아성전기조명상사

대 표 표 광 열(11회)
010-9252-1685

- LED조명기구, 전선류
- 나노 배선기구
- 위너스 배선기구
- 번개표 조명
- 각종 전기용품도소매 총판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 4(대흥동)
TEL : (042) 253-1625 / 226-1625
FAX : (042) 222-1625
E-mail : asung430@naver.com

충청도전지역 사무용유통, 인터넷 배송전문업체

신동양사무용유통

대표 이 용 태(기. 23회) 010-3370-0831

청주본점 :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656 T. 043-295-9722~3
대전지점 : 대덕구 대화로 50번길 52 T. 042-632-5500, 5502
천안지점 : 서북구 동서대로 176 T. 041-573-1100
당진지점 : 아산 인주면 인주산단로 23-38 T. 041-541-9722~3